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가져야 할 솔로몬의 지혜

- 예측불허의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김현중 선임연구원



지난 8월 23일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차입한 구제금융자금 중에서 잔여분인 1억 4,000만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당초 2004년 5월로 예정된 상환일보다 조기에 IMF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정부는 IMF 차입금의 조기상환으로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고 대외지불 부담이 축소됨에 따라 외화유동성 측면에서 경제불안의 재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임을 예견하였다. 솔직히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예상에 동의하였고 국제적인 채무국으로부터 벗어난 데 대한 안도감과 자긍심에 기뻐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하반기 이후의 경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망과 낙관은 IMF의 간섭이 없는 정부의 경제정책 전개로 경제운용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IMF 체제하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외환 및 자본 자유화조치로 인해 국제자본의 유출입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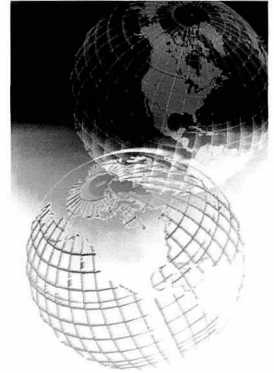
한편, 지난 8월을 전후하여 한국경제는 소비성향이 서서히 살아나고 주택경기와 건설부문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기미에도 불구하고 미국 IT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인해 수출은 여전히 침체되고 투자위축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는 수출은, 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의 주력을 이루었던 IT분야 수출의 급격한 하락이 부진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의 수출이 2000년 대비하여 크게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미국, 일본, EU를 주축으로 한 선진국경제는 지난 2000년에 4% 정도에 이르렀던 경제성장률이 금년 상반기에는 3% 대로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인도, 중남미, 러시아, 동유럽 등 개발국가들은 2000년 6%에서 2001년 상반기에 5%, 하반기에 4.5% 내외의 소폭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하강 국면은 2002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2002년 하반기에는 2000년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판단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세계무역의 규모가 수요부진과 IT 분

야 경기급락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데 기인한다.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의 수입수요가 떨어짐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국가들의 수출부진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부정적인 변화는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자극하게 되어 우리업체에서는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달러화 가치의 경우, 산업계와 정부간의 달러 가치변화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또 다른 경기변화를 야기하였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경기침체의 장기화조짐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 및 증시 폭락을 우려하여 달러화 가치를 약화시키는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고달러에 따른 무역수지의 악화, 이미 진전되고 있는 IT분야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정부의 고달러화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경기침체가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전체에 걸친 문제로 유로화나 엔화가 약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투자심리 위축 → 산업생산 둔화 → 경기침체 지속이라는 악순환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2001년에만 7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남은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중앙은행은 경기침체 탈출과 물가불안이라는 두 가지 숙제 앞에서 소폭이나마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너무 급격하거나 큰 폭의 금리인하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미국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2001년 하반기 이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경기예측에 따라 미국의 금리정책은 인상기류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요인까지 겹친 유럽은 더더욱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국면을 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도 생산량 증대나 다른 원인이 아닌 수요감소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지속적인 유가하락은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유가의 반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상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 원유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국제경제 흐름의 중심, 미국

앞선 이야기 속에서 세계경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것이 미국 IT분야의 경기침체이다. 1년에 모두 8회에 걸쳐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지난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의 침체가 소비부문 등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제조업 부문의 중심에 바로 IT산업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는 2000년 9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였고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제조업 부문 설비가동률 또한 크게 하락하였다. 다만 전체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아직까지는 그다지 감축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경기감축을 버텨내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고용시장 악

화로 향후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과 걱정되는 이야기로 가득 찬 미국의 경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국제경제의 흐름이 미국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국제적인 구매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구매력이기 때문이다.

미국 비금융기업 전체 이익은 2000년 4/4분기와 2001년 1/4분기에 걸쳐 감소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적의 부진은 전업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IT분야의 이익은 2/4분기에 50%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호황기에 이익실현에 대한 기대가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끌지만, 경기가 불안해지면 기업의 실적부진이 투자를 축소시키고 이는 다시 수익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논리가 현재 미국경제에 팽배해 있다. 경제의 성장기에 설비투자가 기여하는 정도보다는 하락기에 오히려 그 기여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성장의 감퇴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미국경제의 어두운 소식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고 투자가 위축되어 발생하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는 투자가 회복되어야 되 살아나는 것이며, 미국 산업내 설비투자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IT분야의 투자가 회복되어야 미국의 경기도 회복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나라 경기의 일면을 보여주는 건설투자는 금년 들어 저금리, 주택관련 세제변화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침체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생산 증가율이 여전히 2000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별다른 상승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 설비투자증가율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표면적인 현상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IT산업 등 지난해까지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전통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역전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작년까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전통 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나 성장주도산업들에 대한 수요부진, 수출감소, 공급과잉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은 PC와 통신시장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축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상황 개선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 금년 중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와 주변기기, 휴대폰 등의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미국에 대한 비중이 작년의 경우 전체 수출의 30% 정도에 이르렀는데, 미국 IT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한 이들 부문에 대한 수출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도 미국시장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지난 9월 11일 테러사건에 따른 후유증은 어려운 경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의 상황을 돌아보면, 2000년 GDP 대비 12%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수출에 있어서도 전체 수출의 30%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며 무역흑자에 대한 기여도 역시 컸다. 사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이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추세와 궤

를 같이 하고 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격한 보급,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PC생산의 급증, 광통신망 등 통신인프라확충에 따른 투자의 확대 등, 세계 IT산업의 성장요인이 곧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되기 시작한 IT산업은 금년 들어 일부 적자기조로 돌아서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실적악화는 곧 바로 주가폭락과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산업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흔히들 이와 같은 IT분야의 갑작스런 침체 원인으로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에 따른 투자 위축을 들고 있다. 이동통신, 인터넷 등 IT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분야는 2000년을 넘어서면서 점차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나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세대의 이행(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차세대인터넷)은 당초 기업들이 의도한 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강력한 비전 제시에 부응하는 기술이 제때에 출현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을 위한 비용은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투자의 여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이동통신의 붐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매료되었던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의 결함, 호환성의 결여,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단말기의 출시 지연에 더 이상의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수요부진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 대한 전망은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시한 IT중심의 신경제 하강, IT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침체, 자산가치 감소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수요 위축,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의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요약되는 일련의 현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되풀이형 의문을 자아낼 정도로 뚜렷한 원인보다 보는 시각에 따른 상이한 해석이 상충하는 기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상황은 급박하고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로에 선 정보통신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분명히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가벼운 대안 제시 정도로 넘어가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보이기 이전에 두 여인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기로 하자.

우선 필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가장 욕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 시장이 성장일로에 있을 때 기업의 목표는 대개 매출액이나 기업규모의 성장 등 성장성에 중심이 주어져 있다. 어차피 전체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은 성장에 따라 어느 정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유동성(대표적으로 현금흐름)이 기업의 생명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 적절한 성장기회를 놓치면서까지 유동성을 고집해 왔던 기업이 마치 대단한 예견력이 있었던 것처럼 평가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유동성의 확보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침체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는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이 지금은 무엇을 지표로 운영되

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에만 욕심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굳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상이한 기업환경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경영목표는 다양하게 설정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이 구사되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목표설정과 분명한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매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니 가치경영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의 구성원인 개별 기업들이 자사의 가치중심을 무엇에 둘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라 목표설정과 전략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가치를 찾는 자에게 돌아오는 솔로몬의 지혜

기업의 가치는 투자가치, 고객가치, 내부가치 등으로 크게 대별되며 여기에 한가지 더하고 싶은 것이 혁신가치이다.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의 보유여부를 말하는 투자가치는 독자적인 기술력, 그 기업만이 확보가능한 시장, 적절한 생산력 등이 지표가 될 수 있다. 고객가치는 고객이 인정하는 가치로 색다른 매력과 경쟁력있는 품질, 구매의 지속성 등으로 표현되며 구매할만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색을 갖추고 고객이 기분 좋게 돈 낼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내부가치는 기업의 비전에 합의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종업원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가치란 새로운 경영시스템에 대한 적응속도,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기업의 이익실현에 기여하는 속도와 크기 등이며 향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업계에 매력있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문제를 두고 앞서 언급한 가치 중심의 지혜찾기를 해 보면, 먼저 어떤 제품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중국에 진출할 것이며 그러기 위한 기술력과 생산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자체 진단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완비되어야만 투자자는 그러한 기업의 중국진출에 호응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고객은 누가 될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구매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의 특성 등을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조율, 중국시장 진출에 따라 변화될 생산전략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내부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반의 여건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배려, 신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변화의 예상규모 및 발생시기에 대한 예측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러한 가치진단을 하는 시간이 낭비이자 시간소모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경우에 어느 기업에서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다만 가치중심의 기업경영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뜻에서 예시한 것이며 우리기업들이 이와 같이 분명한 욕심을 가지고 차별성 상황에 대처한다면 미국 테러사태 이후에 우려되는 모든 국내외 경기전망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혜를 가지지 않은 자는 없으나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작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차별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이 될 것이다.